

## 金宗直의 서적 간행 활동 일고

- 지방관 재임기를 중심으로 -

구 슬 아\*

### < 目 次 >

I. 문제제기	2. 문화 축적을 통한 유가
II. 서적 간행의 경과와 특징	문명 확산: 문장학습서와
III. 서적 간행의 목적	禮書의 보급
1. 교재 간행을 통한 교육 효과	IV. 교육자 김종직의 재발견
제고: 童蒙書와 注解書의 보급	

### < 국문 초록 >

본고는 佔畢齋 金宗直의 정치적 이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治績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는 지방관 재임기, 그가 嶺南 지역에서 간행한 8종의 서적들을 목록화하고 그 간행 양상과 특징, 목적을 연구한 것이다. 먼저 김종직이 간행에 참여한 서적들이 문장 학습 및 科擧 준비와 일정부분 관련이 있음을 살피고, 그것이 조선전기 영남 지역의 학술사·서지사적 경향과도 일치함을 분석하였다.

김종직은 經書와 문장학습서를 중심으로 지방의 인재를 고무시키고 향촌의 문화를 유교적으로 쇄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그는 지방의 인재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 조정으로 진출하여 조선의 문명화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경전의 독서를 가능하게 하는 각종 注解書를 간행하였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trot999@snu.ac.kr

그것은 유가의 경전에만 머물지 않고, 당송고문을 학습할 수 있는 문장선집, 예서 등에 이르렀다. 특히 주해서는 조선전기의 경전 학습방법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김종직은 자신이 간행·보급하는 서적들이 지방 인재들의 학습 교재이자 조선에 유가 문명을 확산시킬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랐다. 이 연구를 통해 교육자로서 김종직의 면모를 재발견하고, 조선전기 문학사의 연구사적 공백을 일정 부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김종직, 지방관, 서적 간행, 주해서(注解書), 교육자

## I. 문제제기

본고는 佔畢齋 金宗直이 지방관을 역임하던 1470년부터 1481년까지의 12년간, 그가 嶺南 지역에서 간행한 서적들의 목록을 망라하여 경과와 특징, 이를 통해 간취할 수 있는 김종직의 간행의식을 고찰한 연구이다. 그간 서지학적 연구에서 지방의 인쇄 문화 활동을 고구하는 가운데 김종직이 간행에 참여한 서적들의 존재가 간략히 언급된 바 있으나, 그것이 한 자리에서 조망된 바 없다보니 연구자들이 해당 서적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간행의 경향성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왔다.

점필재 김종직의 생애와 교유관계를 살펴보면, 그는 함양군수와 선산 부사를 역임하던 시기, 정치가로서의 면모 못지않게 학자이자 교육자로 자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종직은 자기 자신의 학문 수련에 매진함은 물론, 그 내용을 서적 간행과 교육을 통해 후진 학자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sup>1)</sup> 김종직의 학풍은 그간 『小學』과 『家禮』를 중심으로 한

1) 정경주는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재직하면서 거둔 가장 큰 성과가 바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어 조선조 학문과 사상 및 문학사에 일대 전환기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정경주, 「점필재 김종직의 政敎와 講學의 서정-함양군수 시기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3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3, pp.206-207. 그밖에 지방관 재임기 김종직의 구체적 활동 양상과 창작 작품, 교유 양상은 즐고, 「金宗直

‘실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실제 김종직이 교육에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각종 서적들의 존재가 확인되어 새로운 주목과 實證을 요하는 시점이다.

김종직은 『東國輿地勝覽』의 편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거니와, 『靑丘風雅』, 『東文粹』 등의 選集을 편찬하여 당대까지의 시문을 정리하려 노력한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김종직이 지방관 재임기에 여러 제자들을 만나 수학하였다는 점은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당 시기에, 김종직이 후진 양성의 일환으로 여러 서적의 간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한 자리에서 조망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강화하였는지 이때의 교재로는 어떠한 성향의 저서들이 사용되었을지에 대해서도 추측된 바 없다. 필자가 조사한바, 이 시기에 김종직이 간행에 참여한 서적은 모두 8종이다. 이들 서적은 현전하기도 하고, 重刊 과정에서 舊跋이 함께 관각됨으로써 존재가 알려지기도 하였다.

최근 조선전기 연구자들이 현전하는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한 연구사적 경향의 편중을 보이고 있음이 지적되었다.<sup>2)</sup>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집 외에 현전하는 다양한 經書 등을 傍證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年譜나 문집에 기재된 書名과 각급 도서관 등에 흩어져있는 자료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현전하지 않는 서적이라 할지라도 序跋類와 後印된 실물 자료들을 엮어 당시의 학술사적 상황의 일면이라도 재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자료의 서지적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두기보다는 서발류와 현전하는 기록을 종합화하여 김종직이 지방관을 역임하던 시기에 편찬에 관여한 서적들의 실상을 확인하고 그 특징을 조명함으로써 김종직이 지닌 서적 간행의도와 그 학술사적 의의를 고구해보고자 한다.

산문 연구-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31-35 참조.

2) 김우정, 「조선 전기 한문산문사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회연구』 65, 한국한문학회, 2017, pp.91-92.

## Ⅱ. 서적 간행의 경과와 특징

김종직은 成宗이 즉위한 직후인 1470년, 노모 봉양을 이유로 咸陽郡守를 자원하였다. 1475년에 함양군수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인사고과에서 十考를 받아 중앙조정에 복귀하였으나, 이내 다시 善山府使를 자원하였다. 1482년 홍문관 응교로 복귀하기까지 만 12년을 지방관으로 지냈던 것이다.

함양군수를 역임 중이던 1474년(성종5) 10월에 姜希孟에게 보낸 「答晉山君書」에서 김종직은 王化에 보탬이 되고자 政教에 특별히 힘을 썼다고 술회하였는데,<sup>3)</sup> 그 방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채로운 서적 간행 활동이었다.

해당본의 실물 현전 여부와 관계없이 김종직의 문집인 『佔畢齋集』에 수록된 序跋, 문집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重刊本 등 최근까지 발견된 서적에 수록된 跋 등을 통해 확인할 결과, 1470-1481년까지 김종직이 간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서적은 총8종이다. 徐居正이나 강희맹 등 조선 전기의 유력 문인들이 지방관을 역임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종직이 지방에서 8종이나 되는 서적을 간행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그간 김종직이 인쇄출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서적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간본의 書名과 서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서명과 발행사항, 김종직의 개입여부, 문집 수록 여부 및 四部分類, 특이사항 등을 정리한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 金宗直, 「答晉山君書」, 『佔畢齋集』文集 卷1, “及夫交龜之後, 迎致老母, 養之以一邑, 心頗安焉. 聖恩如天, 輒思報效, 凡政教有可以裨補王化者, 則無不力爲之.”(이하에 인용된 김종직의 시문은 『점필재집』(한국문집총간 12집, DB)에서 인용된 것이며, 그 외의 것은 별도로 출처를 밝혀두었다.)

<표1> 지방관 재임기(1470-1481) 김종직이 간행한 서적 목록

연번	서명	발행자	발행년	발행지	김종직의 개입여부	비고
1	詳說古文眞寶 大全	李愬長	1472년	晉州	咸陽郡守 (직접적)	•『점필재집』 미수록 •集部 總集類
2	靑丘風雅	金宗直	1473년 8월	미간행	咸陽郡守 (직접적)	•『점필재집』 미수록 •集部 詩文評類 •1488년 金屬活字本(甲辰字) 刊行 <sup>4)</sup>
3	晉山世藁	金宗直	1473년 10월	咸陽	咸陽郡守 (직접적)	•『점필재집』 미수록 •集部 總集類
4	莊子虞齋口義	金永濡	1474년 7월	慶尙道	咸陽郡守 (직접적)	•『점필재집』 미수록 •경상도 17개읍 分刊 •藏板:慶州 •金屬活字本(庚子字)의 飜刻本 •子部 道家類
5	孝經刊誤	尹孝孫	1477년	善山	善山府使 (직접적)	•『점필재집』 미수록 •經部 孝經類
6	纂圖互註周禮	尹孝孫	1478년	慶尙道	善山府使 (직접적)	•『점필재집』 문집 권2, 「新刊周禮跋」 •藏板:淸道 •金屬活字本(甲寅字)의 飜刻本 •연보:1477년(오류) •經部 禮類
7	詩集傳	朴健	1478년	密陽	善山府使 (직접적, 추정)	•『점필재집』 미수록 •경상도 鉅邑 分刊 •발문 작성: 1478년 •刊記:成化十五年己亥(1479) 四月日密陽府開板[刊] •연보: 「詩傳跋」, 1477년(오류) •經部 詩類
8	舜尊錄	金宗直	1480년	미간행	善山府使 (직접적)	•『점필재집』 부록 수록 •1458년 初撰 •史部 傳記類 別傳

미간행서적을 포함, 김종직이 간행 및 편찬에 관여한 서적을 사부분류에 따라 일별하여 보면, 함양군수 시절에는 集部 세 종과 子部 한 종을 간행하였고 선산부사 시절에는 經部 세 종과 史部 한 종을 간행하였다. 이 중 당시 김종직에 의해 실제로 간행된 주요서적의 특징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詳說古文眞寶大全』은 송대의 학자 陳櫟이 편차하고 批點과 註釋을 가한 『批點古文』과 원대의 학자 林楨의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를 바탕으로, 1437년에 劉劄이 완성한 것이다.<sup>5)</sup> 각 편의 제목 아래 작품의 대의를 주석으로 제시하고, 문장과 자구에 대한 상세한 주해를 특징으로 한다.<sup>6)</sup> 김종직이 간행한 목판본은 翰林侍講 倪謙이 조선에 사신 올 때 가져온 것을 1450년(세종32)에 금속활자로 간행한 본의 복각본이다. 그에 따르면 경상감사 李愬長이 경상도에 『상설고문진보대전』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의 家藏本을 진주감영에 위탁하여 간행하도록 하였으며, 후임 감사인 오백창이 간행비용을 마련하여 간행을 완료하였다.<sup>7)</sup> 저본이 된 금속활자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고,<sup>8)</sup> 그 飜刻本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은 성암고서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고문

4) 『청구풍아』의 판본 양상에 대해서는 김영봉, 『『청구풍아』연구』, 『열상고전연구』 11, 열상고전연구회, 1998, pp.219-220.

5) 심경호, 「고문과 고문론」,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pp.149-150.

6) 강찬수, 「中國刻本 <古文眞寶>에 대한 연구」, 『중국문학연구』 32, 한국중문학회, 2006, pp.74-75 ; 정제철, 『『詳說古文眞寶大全』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pp.24-25.

7) 김종직, 『詳說古文眞寶大全跋』, 『詳說古文眞寶大全』(국립중앙도서관 DB, 청구기호: 古朝43-나1-3) “景泰初, 翰林侍讀倪先生將今本以遺我東方, 其詩若文, 視舊倍篋, 號爲大全. (中略) 然而此書不能盛行于世, 蓋鑄字隨印隨壞, 非如板本一完之後, 可恣意以印也. 前監司李相公愬長嘗慨于茲, 以傳家一帙, 囑之晉陽, 今監司吳相公伯昌繼督, 牧使柳公良, 判官崔侯榮, 敬承二相之志, 力調工費. 未朞月而訖功.”

8) 청구기호는 만송귀-65-5, 신암귀-65-8 등이다.

9) 성암고서박물관 등에 초주갑인자의 번각본 중 임란 이전 발간 추정본이 소장되어 있다.(청구기호: 성암4-191, 성암4-189 등)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 등재된 서지

진보』는 田祿生(1318~1375)에 의해 처음 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유로 김종직의 발문 역시 전녹생의 후손들이 엮은 『桮隱先生逸稿』에 수록되었으며, ‘成化八年壬辰四月上澣, 奉正大夫行咸陽郡守, 晉州鎮兵馬同僉節制使金宗直, 謹跋’이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간행이 1472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또한 이 官銜을 통해 당시 김종직이 함양군수이자 진주의 병마첨절제사를 겸직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상설고문진보』가 진주에서 간행되는 과정에 김종직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晉山世藁』는 병조판서를 역임하던 姜希孟이 養父인 姜順德(?~1474)의 병구완을 위해 고향 함양에 내려와 조부 姜淮伯·부친 姜碩德·형 姜希顏 三代의 문집을 모아 하나로 엮은 서적이다. 김종직의 발문에 따르면 강희맹이 세고를 엮은 뒤 淨寫本을 김종직에게 주고 함양의 재력과 김종직의 문학적 재능을 활용하여 이를 간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私田의 곡식까지 희사하였다. 강희맹은 김종직의 先兄 金宗碩의 親友이자 함양 출신의 정치적 선배로서 김종직이 어린 시절부터 舊緣이 있었다.<sup>11)</sup> 이에 김종직은 함양의 工人 9인을 모집하여 刻字하고 1473년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진산세고』의 목판본을 간행하였던 것이다.<sup>12)</sup> 발문에서도 드러나듯,

정보에 의하면 ‘成宗 3(1472)刻’이며, 四周單邊, 9行15字이나 필자가 실물을 확인 하지는 못하였다. 별도의 刊記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

- 10) 『야은일고』에는 이 뒤에 “按兩公誌跋, 備述眞實始終, 而近歲板本, 多不載是書, 學者不省其所從來. 況姜公既無其集, 金公本集, 又逸而不收, 故今特全編錄之, 俾知先生刪增首刊之功, 且以竣重刊眞實者而附載焉.”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 11) 강희맹은 1442년 함양에 체류하며 김종직 형제를 만났고, 김종석과는 함께 한양의 흥덕사에서 사가독서를 하였다. 김종직이 어린 시절에 흥덕사에서 함께 인연을 맺은 정황이 강희맹, 『送金修撰宗直, 作宰咸陽二首』(『私淑齋集』 권1), “景醇少與伯氏同學, 君於其時尚幼, 從某等迫索興德寺池荷, 與伯氏謀所以應求, 而時被主髡所罵.”에 잘 드러나 있다.
- 12) 김종직, 『晉山世藁』, 『晉山世藁』(영인본, 晉山世稿 重刊委員會 編, 景仁文化社, 1976), “右晉山世稿一帙, 今夏官姜相公編其祖父兄三世之所著也. 通亭爲第一卷, 玩易齋爲第二, 仁齋爲第三. 公編之既, 以宗直故人之弟, 而又嘗從事于史局, 以繕寫淨本見寄. 且曰: “此吾先世之菁華, 惟懼失墜, 無聞于世. 子素善文墨, 且爲

함양은 비록 지역적 규모는 작으나 인쇄출판을 감당할 수 있는 판목을 다량 소유하였던 곳으로 보인다. 『진산세고』는 지역 출신의 유력 인사가 해당 지역 지방관과의 개인적 인연을 바탕으로 자기 가문의 문집을 간행하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발문 말미의 ‘是歲癸巳(1473)冬十月日, 咸陽郡守嵩善金宗直謹識’라는 기록을 통해 1473년에 함양에서 『진산세고』가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권1冊으로 구성된 이 책의 실물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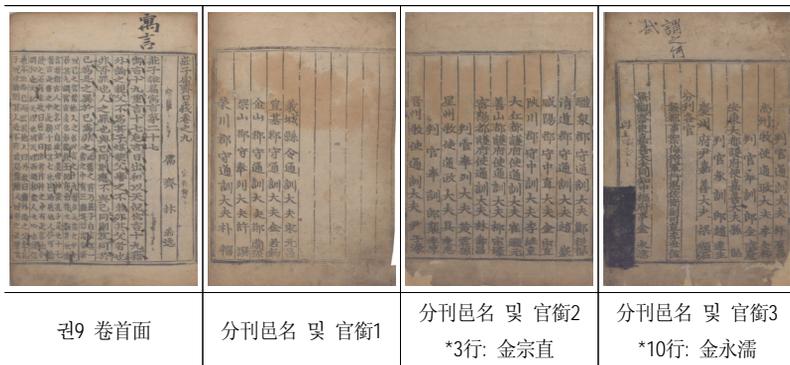
『莊子肅齋口義』는 남송말의 학자 林希逸이 『장자』에 대한 郭象의 註와 陸德明의 音義 등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장자』를 해설한 10卷의 句解書이다.<sup>14)</sup> 이 책은 1425년(세종7)에 『노자권재구의』와 함께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sup>15)</sup> 『세종실록』에는 鑄字所에서 찍어낸 『장자』를 세종이 문신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나눠준 『장자』가 庚子字로 찍어낸 『장자권재구의』이다.<sup>16)</sup> 이후 『장자권재구의』는 경상도 지역에서, 老列 二書는 강원도 지역에서 복각되었다. 1474년(성종5) 강원감사 李封

百里之長於吾郡, 財力當有所濼也. 盍圖所以鋳諸梓以成吾之志乎? 宗直拜命之(中略) 天嶺, 雖小邑, 非孔道也. 宗直又不喜畢弋之娛, 浮貴頗省頭流崖谷梓木如雲. 公且捐別業所儲之穀, 以資其用, 有何勞損於民而不爲之盡心耶? 遂募工得九人, 使鑄之始事, 以六月而訖工, 以九月其始自今.”

- 13) 청구기호는 'D02B-0339'이다. 발행시기는 147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발행지가 ‘晉州’로 기재되어 있어 확인을 요한다.
- 14) 임희일의 字는 肅翁, 淵翁이고 號는 竹溪, 肅齋, 肅機이다. 『考工記解』, 『老子肅齋口義』, 『列子肅齋口義』, 『肅齋讀集』 등의 저서가 있다. 임희일은 老壯이 儒家의 본의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김형석, 「南宋 林希逸의 新儒學的 老莊解釋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p.77-95.
- 15) 심경호, 「조선전기의 註解本 간행과 문헌 가공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20, 대동한문학학회, 2004, pp.172-177.
- 16) 박현순, 「『남화경주해산보(南華經註解刪補)』번역: <소요유>, <제물론>, <양생주>」, 고려대학교 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0, p.2 ; 『세종실록』권 27, 1425년(세종 7) 1월 17일 ; 『세조실록』권42, 1467년(세조 13) 6월 22일. 박현순 선생님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1425년(세종 7)에 庚子字로 간행된 『장자권재구의』(청구기호:b21264-6)가 소장되어 있다.

이 原州에서 『노자구의』, 『열자구의』를 목판으로 간행하였으며, 같은 해 서거정이 지은 「新刊老列二書跋」(『사가집』 미수록)에 따르면 강희맹과朴槿 등이 발행에 참여한 목판본이 간행되었다.<sup>17)</sup>

김종직의 발문에 따르면, 『장자권재구의』는 1474년에 경상도 관찰사 金永濡의 주도로 경상도 지역 17개 고을에서 나누어 판각·간행된 것으로, 금속활자본의 복각본이다.<sup>18)</sup> 이 복각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 : 한貴古朝11-8), 한국학중앙연구원(귀중본, C3-21), 충남대학교 도서관(子道家類-115) 등에 소장되어 있다.<sup>19)</sup> 이 책은 四周雙邊, 11行21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의 형태사항, 그리고 발문의 말미에 分刊한 邑名과 해당 지방관의 官銜이 나열된 형태로 보아 금속활자본의 저본이었던 元末明初 서적의 형태적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 참조)<sup>20)</sup>



<그림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자권재구의』(청구기호 : 한貴古朝11-8) 사진

17) 이인영, 『청분실서목』 권3, 『鶴山李仁榮全集』, 국학자료원, 1998, pp.247-248.  
 18) 김종직, 「莊子虞齋口義跋」, “歲在甲午, 方伯金公永濡之至也, 偶得一本, 分刊各邑, 鳩集于慶州府.”  
 19) 김종직의 발문은 국립중앙도서관 DB에 수록되어 있고, 『청분실서목』에도 개략적 내용이 실려 있다.  
 20) 宋·元代 서적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서는 옥영정, 「국내 현존 宋·元本の 조사와 書誌의 분석」, 『서지학연구』 52, 서지학회, 2012, pp.249-293을 참고하기 바란다.

『孝經刊誤』는 今文·古文 『효경』에 공자와 증자의 문답 내용이 소략하고, 여러 책에서 인용한 것이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부분까지 공자의 말이라 믿는 당시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朱熹가 경1장과 전14장의 체제로 재편하여 1186년에 완성한 것이다.<sup>21)</sup> 그간 조선전기에는 『효경간오』가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sup>22)</sup> 최경훈(2009)의 논문에서 목판본 『孝經刊誤』의 존재와 김종직의 간행 참여가 소개된 이래, 옥영정(2012)의 논문에서 구체적 발문 내용과 간기가 밝혀졌다.<sup>23)</sup>

옥영정 선생님의 논의에 따르면, 『효경간오』는 1476년 全州府尹 尹孝孫이 전주에서 開板한 것이 전해지며(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180.79-효경7), 김종직의 발문이 수록된 본은 동아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4)</sup> 권수제는 ‘孝經’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효경간오』이며, 전주에 藏板되어 있던 판본이 마모되자 윤효손이 조맹부의 송설체 證道歌를 바탕으로 판각하였다.<sup>25)</sup> 이듬해인 1477년 경상감사로

- 
- 21) 정호훈, 「朱子 『孝經刊誤』와 그 성격」, 『동방학지』 11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2, pp.80-81.
- 22) 강문식, 「조선전기의 『효경』 이해」, 『정신문화연구』 35-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p.10-18.
- 23) 최경훈, 「조선전기 주자 저술의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2, 서지학회, 2009, p.458 ;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50, 한국서지학회, 2011, p.461 ; 옥영정, 「『효경간오』, 『효경대의』, 『효경언해』의 간행본과 그 계통 연구」, 『정신문화연구』 35-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p.60-69. 김종직이 지은 발문의 원문은 옥영정 선생님, 위의 논문, 2012에 수록된 사진을 통해 접하였음을 밝혀둔다.
- 24) 동아대학교 한림도서관 소장본의 청구기호는 (1):7-40이나 필자가 실물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밖에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종직의 발문이 수록된 간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청구기호:A8-2 / 南原 : [刊寫者未詳], 中宗 25(1530)),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청구기호: D147-주98권 / 慶州 : 雲谷書院, 1801) 등에 소장되어 있다.
- 25) 최경훈, 위의 논문, 2009, p.458. 윤효손이 전주에서 개판한 『효경간오』의 존재와 그 발문의 내용은 『청분실서목』에도 수록되어 있다. “末有成化十一年乙未五月日全州府開板記, 及成化十一年乙未府尹尹孝孫跋. 略云, 完山舊有刻板, 今已剝缺, 遂將趙松雪證道詞字囑予以模之, 或於治事之暇, 親加臨模, 其不足若干字, 求其點畫而補之. 雖未能盡傳其天真, 亦或仿佛乎萬一. 書成, 命工鋟梓, 志學者得之,

부임하자, 그가 전주부윤 재직 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선산부사 김종직에게 간행하도록 한 것이다. 李獻慶(1719-1791)이 지은 「孝經重刊跋」에도 김종직이 선산부에서 『효경간오』를 찍어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sup>26)</sup>

『纂圖互註周禮』 역시 1478년 김종직이 선산부사 재직 시 윤희손의 권유에 의해 간행된 서적이다. 『점필재집』 문집에 서명이 『新刊周禮』라고 되어 있으나, 권수면에는 『찬도호주주례』라고 명시되어 있다. 『찬도호주주례』는 『주례』에 대한 鄭玄의 註와 육덕명의 음의를 바탕으로 『주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圖說이 수록된 서적이다.<sup>27)</sup> 조선전기에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이 먼저 존재하였으나 실물이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김종직이 이것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이 일본 蓬左文庫,<sup>28)</sup> 전남대학교 도서관(청구기호: 1E1 - 주234자), 고려대학교 도서관(청구기호: 대학원貴-6), 성암고서박물관자료실(청구기호: 성암1-75) 등에 소장되어 있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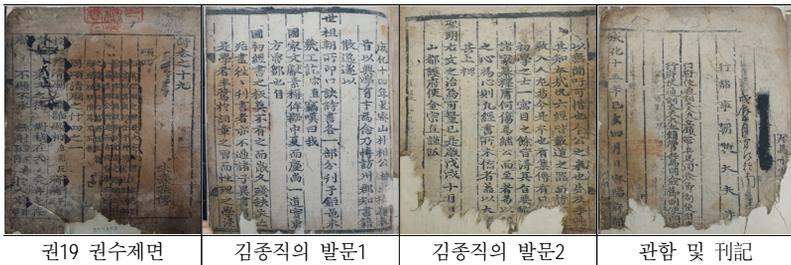
『점필재집』에 수록된 「신간주례발」에 의하면 김종직은 자신의 가장본 『찬도호주주례』를 내놓아 경상도 13개읍에서 分刊하게 하였으며, 淸道에 장판각을 세우고 여기에 판목을 鳩集해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청분실서목』에 의하면 발문 말미에 ‘成化十四年(1478)三月日, 善山都護府使尙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金宗直謹跋’이라고 쓰여 있어 이 서적이 1478년 3월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讀其書而起孝, 習其字而游藝.”

- 26) 李獻慶, 「孝經重刊跋」, 『艮翁集』 권21, “東方之人, 只以訓蒙幼, 長則忽之. 且刊本絕罕, 新學後生, 多不見孝經面目, 甚可慨也. 佔畢齋先生嘗刊之於善山府, 其後又刊於興海郡, 而今皆亡矣.”
- 27) 심우준, 「『纂圖互註周禮』板本考」, 『인문학연구』 4-5,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7, pp. 159-186 ; 김치우,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114.
- 28) 심경호, 「조선전기의 註解本 간행과 문헌 가공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20, 대동한문학학회, 2004, pp.172-177 ; 천혜봉, 『일본 봉좌문고 한국전적』, 지식산업사, 2003, pp.65-66 ; 이인영, 『청분실서목』 권3, 앞의 책, 1998, pp.204-205.
- 29) 모두 사주단번, 9행15자 주쌍행이나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어미가 2행, 봉좌문고 및 다른 두 곳은 흑어미라는 차이가 있다. 이로 보아 전남대학교 소장본은 후쇄본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詩集傳』은 그간 『점필재집』의 연보에 「詩傳跋」을 1477년에 지었다는 정보와 함께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규장각에 『詩傳』 가운데 1479년(성종10) 밀양에서 간행된 김종직 발문 수록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sup>30)</sup>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청구기호: 想白古 181.113-J868s-v.19/20)은 卷19-20 ‘頌四’의 결질본으로 四周單邊, 10行17字 注雙行, 上下內向黑魚尾의 형태이다. 권수제와 권미제는 모두 ‘詩’이고 판심제는 ‘詩傳’이나, 저자가 ‘朱熹集傳’이라 명시되어 있고 주석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집전』이 분명하다.

다만, 四庫全書本 『시집전』 등과 달리 매 주석 말미에 ‘音釋’이라는 판기와 함께 元代 學者 許謙의 『詩集傳名物鈔』 가운데 음석 부분이 편집되어 추가되어 있다. 권말에 김종직의 발문과 함께 ‘成化十五年己亥(1479) 四月日密陽府開[刊]’라는 간기가 수록되어 있다. 『장자권재구의』와 마찬가지로 경상도 지역의 분간 음명과 관함 등이 함께 적혀있는 것으로 보이나 낙장 및 훼손이 있어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그림2> 참조)



<그림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시집전』(청구기호: 想白古 181.113-J868s-v.19/20) 사진31)

30) 김수경, 「正祖朝 왕실도서관 『詩經』 文獻 目錄 및 텍스트 編輯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p.46. 김수경은 김종직의 발문이 수록된 목판본이 각 시편의 朱熹註 끝에 音釋을 첨가해 읽기의 편의를 제공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상세히 밝히고, 이 음석의 내용이 1754년 영조 명편의 新刊經書本 『시집전』(6행 17자) 수록 음석과 동일하되 판각의 위치만 다르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학자 顧永新의 논문을 인용하여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시집전』 음석본이 원말명초에 宗文精舍에서 許謙의 『詩名物鈔』의 음의를 중심으로 편집한 본이라고 보았다.

김종직의 『시집전』은 음석 부분의 비교 결과 일본궁내청 소장 『시집전』<sup>32)</sup>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詩』(청구기호: 한貴古朝04-4)<sup>33)</sup>와 서지사항은 다르나 내용이 동일하다. 원대 학자 羅復의 『詩集傳音釋』과는 音釋 부분에 다소간 차이가 있어 김종직이 저본으로 삼은 판본이 나복의 『시집전음석』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김종직이 지방관 재임기에 간행한 서적들의 경과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희맹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상도 관찰사의 요청에 의해 서적이 발행되었는데, 이는 조선전기, 관찰사와 지방 관청의 주도로 官版 서적이 보급되던 시대적 흐름과도 일치하는 양상이다. 또한 경부와 자부 서적 모두 『집전』이나 『대전』보다 더 상세한 주석을 특징으로 함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상세한 주해본을 통해 경전의 이해를 도모하던 조선전기의 학문적 경향과 부합하는 것이다.<sup>34)</sup>

예컨대, 1431년 경상도 청도에서는 『춘추』의 난해구를 이해하기 위해 송대의 학자 林堯叟가 직접 구두를 떼고 상세하게 주해한 『春秋經左氏傳句解』의 목판 번각본이 慶尙道觀察黜陟使 曹致와 都事 安質, 淸道知郡事 朱邵에 의해 발행되기도 하였다.<sup>35)</sup> 그밖에 『新編直音禮部玉篇』(1464) 등이 청도에서 개판되었는데, 이 서적은 원판본의 번각본으로 원대 판본의

- 
- 31) 이 발문의 원문은 3장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시집전』은 훼손이 심하여 판독난인 부분이 많지만 홈페이지에 원문 DB가 제공되고 있다. 이 사진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논문 수록 허가를 받은 것임을 밝혀둔다.
- 32) 일본 궁내청 소장 『시집전』의 음석은 顧永新, 『詩集傳音釋本考』, 『詩經研究叢刊』 25, 2013, pp.11-13 참고.
- 33) 필자의 확인 결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20卷6冊, 四周雙邊, 8行14字 注雙行, 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의 明初期 내부간본이다. 권두에 奉勅序(正統十二年(1447)五月初二日)가 부기되어 있다.
- 34) 심경호, 앞의 논문, 2004 ; 임기영, 「청도의 전적 인쇄 문화 연구」, 『서지학연구』 50, 한국서지학회, 2011, pp.124-125.
- 35) 발문과 간기가 수록된 『춘추경좌씨전구해』의 결질이 인천 가천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발문과 간기의 사진이 DB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보물 제1208-1호이다.

형태적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36)</sup> 慶州에서는 1439년, 부윤 李孝仁에 의해 『春秋胡氏傳』이 개판되었다.<sup>37)</sup> 한편 조선 전기 과거시험의 모범 답안지로 여겨져 국가에서 학습을 권유받았던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의 古賦 卷1-8(劉貞(元) 編集)이 일본 봉좌문고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판본은 1454년 밀양에서 개판된 것의 후인본으로, ‘甲戌(1454)八月日密陽府開刊’이라는 간기와 함께 孫肇瑞가 쓴 발문, 간인에 참여한 인물들의 좌목(도관찰출척사 겸 상주목사 李崇之, 都事 李孝長, 府使 李皎然, 교수관 李云俊, 校正에 朴楨之 그밖에 刻字, 都色 등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청구기호: 蓬左 103-31)<sup>38)</sup>

김종직 역시 15세기 경상도 지역에서 출간되던 각종 경전 주해서와 문장 수련에 필요한 서적들의 수요에 발맞추어 위와 같은 서적들을 간행한 것이다. 김종직이 간행한 서적들은 원말명초 서적의 형태서지적 특징, 조선전기 왕실 간행 금속활자본의 복각본으로서의 특징, 음석의 특이성 등 공백으로 남아있는 조선전기 서지학사 및 경학사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아닌가 한다.

36) 임기영, 앞의 논문, 2011, pp.134-137 ; 이인영, 『청분실서목』권3, p.208.

37) 김치우, 앞의 논문, 1999, pp.154-155.

38) 이인영, 『청분실서목』권4, pp.311-312. “端宗二年甲戌密陽府刊覆庚子字。(中略) 未有景泰五年孫肇瑞跋。甲戌八月日密陽府開刊刊記, 及都觀察黜陟使李崇之等刊刻者列銜。跋略云, 監司李相國崇之, 都事李公孝長, 命刊離驛於本邑, 攻訖之際, 府使公不惜費財加備板子, 出家藏一本, 勸工鋟梓, 不數旬而告訖。”

### Ⅲ. 서적 간행의 목적<sup>39)</sup>

#### 1. 교재 간행을 통한 교육 효과 제고: 童蒙書와 注解書의 보급

김종직은 조선 전기의 그 어떤 문인들보다도 지방문화, 특히 자신이 나고 자란 경상도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성리학적 쇄신 의지가 대단했던 인물이다. 그가 지방관을 역임하는 동안, 俞好仁, 金宏弼, 洪裕孫 등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강학을 통해 『소학』과 『가례』를 중심으로 한 실천 성리학을 전수하였다는 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그가 영남 지역에 성리학적 삶의 규범과 교양을 보급함으로써 불교적 구습에서 벗어나 성리학에 의거한 지방 문화의 一新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sup>40)</sup>

그러나 김종직이 보였던 이와 같은 교육자적 면모가 오히려 김종직의像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문헌이 적다보니 김종직 관련 연구가 『소학』과 ‘실천’의 측면에만 지나치게 집중된 면이 없지 않다. 이 절에서는 교재의 간행을 통해 김종직이 제자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시도하고, 나아가 경전에 대한 정확한 학습과 科擧에 급제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까지 이르고자 한 구체적 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종직은 지방의 문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쇄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향교 교육을 들었다. 향교 교육의 구체적 방법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은 1474년 함양군수를 역임하고 있던 당시, 仲兄 金宗裕가 訓導로 근무하고 있던 안음향교에 대한 新倉記인 「安陰縣

39) 이 장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김종직 산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IV장 1절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40) 대표적으로 점필재연구소,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 인문사, 2011 ; 홍원식 외, 『낙중학-조선시대 낙동강 중류 지역의 유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 『조선전기 도학파의 사상-낙중학의 원류』,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 ; 윤인숙, 『조선전기의 사림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6 등을 들 수 있다.

新創鄉校(記)」이다.

조선이 황제의 명을 받아 동방을 다스리면서, 가장 먼저 학교를 열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비록 궁벽하고 먼 시골이라 할지라도 학교가 없는 곳이 없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문명의 다스림이 前代보다 뛰어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안음이라는 고장은 산골짜기에 끼어 있어 참으로 작고도 궁벽한 곳이다. 그러나 호적에 올라 있는 민호가 거의 천여 호나 되고, 관청을 감음에서 이안으로 옮긴 지도 벌써 57년이나 되었다. 이처럼 고을의 연혁이 유구하고, 백성들 또한 이토록 번성한 곳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사가 건립되지 못하여, 혼란스러운 생도들이 절간이나 관청 등 전후 여섯 군데에 더부살이하다가 급기야는 땅이 낮고 협소하며 건물이 다 퇴락해 버린 현령의 폐공관에 의지하고 있다. (중략) “우리 동방에는 가숙당상의 제도가 없어서 백성들이 더욱 어리석었다. 그런데 다행히 성명하신 전하를 만나 十室의 마을에도 모두 학사를 세워 자제들을 가르치며, 3년마다 그 가운데 준수한 인재들을 조정으로 추천하였다. 그런데 여러분의 고을만 유독 그 명단에 빠져서 들리는 바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수령만의 책임이겠는가? 제군들도 함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이다.”<sup>41)</sup>

인용한 대목은 이 기문의 서두로, 김종직은 향교 설치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안음’ 지방은 지리적으로 협소하기는 하지만 인구가 번성하고 건치연혁이 오랜 유서 깊은 고장이다. 안음은 과거 함양의 속현이었고 지리적으로도 함양과 가까워 이 지역의 실정에 대해 김종직은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김종직은 안음 지역의 호구가 늘고 邑治가 안정적 궤도에 접어들었음에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음을 준엄하게

41) 김종직, 「安陰縣新創鄉校」, 『점필재집』 문집 권2, “朝鮮受帝命, 尹東夏, 首以闡庠序, 育人才爲務. 雖窮陬遐裔, 莫不有鄉校, 由是, 文明之治, 度越前古. 安陰爲縣, 介居山谷, 實小且僻. 然其登帳之戶, 殆一千有奇, 自感陰徙治于利安, 且已五十有七年. 爲邑如其久也; 生齒如其繁也. 而學舍至今未克建. 生徒貿貿, 僑寓或僧舍, 或縣司, 前後凡六所, 最後, 依於縣宰之廢衙, 湫隘頽頓. (中略) 曰: “吾東方, 家塾黨庠, 無其制, 而民益蚩蠢. 幸值聖明, 十室之邑, 皆有學舍, 以教子弟, 每三載, 貢其俊秀者. 二三子之邑, 獨闕焉無聞, 豈徒長民者之責? 諸君與有愧焉.”

비판하였다. 특히 지방의 준수한 인재를 서울로 올려 보내고 시험을 쳐서 합격할 경우 벼슬을 주는 貢擧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음 출신의 인재들이 그 명단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학문적 수준이 진보되지 못했음을 꼬집었다. 이것은 위정자나 學官의 책임감 부재 탓만이 아니라 향도들이 학업에 열중하지 않거나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령과 학관, 학생들의 노력이 일치되어야 지방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교육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합리적 주장이 이어진다.<sup>42)</sup> 이처럼 김종직이 지방관을 역임하던 시기, 도처에 새로이 향교가 설립되고 교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향학에 필요한 교재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터이고, 이에 따라 김종직 역시 교재의 간행에 힘썼던 것이다.

『효경간오』는 바로 子朱子가 『대학』 경전의 예에 의거하여 分章한 것이다. 애석하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풍유(風流)의 학문에 대해서는 소홀하여 뜻을 극진히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방백(防伯)이신 대방 윤효손(尹孝孫) 상공(相公)께서 일찍이 완산(全州) 지역의 부윤(府尹)을 역임하셨는데, 공무를 보시는 여가에 손수 조맹부(趙孟夫)의 증도가체를 모사하여 그 책을 간행하였다. 성화(成化) 정유년(1477, 성화13, 성종8) 봄에 경상도의 절도사로 부임하셨는데, 弊府(자신이 부사로 있는 전산을 겸칭한 것)에 명하시어 완산(全州)본을 바탕으로 판각에 착수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호남과 영남에는 집집마다 이 책을 보유하게 되었으니, 몇 년이 걸리지 않아 해동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을 읽는 자들은 비단 그 뜻을 이해할 뿐 아니라 송설(宋說)까지 겸하여 익힐 수 있게 되었으니, 아! 그 이택

42) 김종직, 앞의 글, “我殿下即位之四年, 中原崔侯榮, 自晉州通判, 移蒞于茲. 余兄仲容, 方爲訓導, 道同志合, 語及于是, 慨然有營建之志. 于時, 朝廷有旨, 令諸道, 修葺學校. 兄語崔曰: “時不可失.” 卜地於縣治之北三里許, 得厚岩寺舊址, 林麓幽邃, 面勢隆曠, 東西二川, 鏘鳴金石, 合流于巽維, 宛若泮水之制. 兄又語崔曰: “地不可失.” 遂欣然諧協, 須材之夫, 發於儒吏之戶; 陶土之工, 徵諸遊手之徒, 募得良民許遠, 先立夫子廟, 規制宏敞. 是癸巳之秋八月也. 未幾, 崔侯政成而還朝, 平陽申侯允完繼來, 其程督一如崔侯. 左齋右庖, 前置修軒, 明倫之堂, 端據其後, 而東西夾室, 具焉. 乃塗其腹, 周以崇墉, 告成于甲午之夏四月. 又作十二位之神主, 奉安新廟, 既舍采已, 大合縣之耆老而落之. 隣邑文士, 咸來觀禮.”

이 어찌 넓지 않겠는가? 아울러 송설체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대부분 佛書나 병풍 죽자류에 불과하였는데, 이제 聖經賢傳에 의탁하여 세상에 무궁하게 빛을 드리울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자양(趙孟頫의 字)의 일대 영광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같은 해(1477) 중추에 선산도호부사 김종직은 삼가 발문을 쓴다.<sup>43)</sup>

인용한 글은 『효경간오』 발문의 全文이다. 여기에서 김종직은 ‘蒙幼’ 즉 이제 막 교육에 입문하는 어린 초학자들을 위한 교재의 간행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찍이 김종직은 부친 金叔滋로부터 家學을 전수받았는데, 『이준록』에서 김종직이 회상한 바에 따르면 김숙자로부터 『小學』을 읽은 뒤에 『孝經』을 읽도록 교육받았다.<sup>44)</sup> 그런데 바로 이 글에서 김종직은 『효경』이 ‘蒙幼之學’을 위한 교재임을 명시하고 있다.<sup>45)</sup>

아울러 윤호逊이 원대의 서법가 조맹부의 글씨체를 손수 모사하여 『효경』의 경문을 작성함으로써 몽학들이 그 필체 또한 익히도록 하였다라는 점을 고평하였다. 『이준록』에서 “勸之書字則曰：‘書，心畫也，模楷必端正，草及篆，亦須要精熟.’”이라 하여 초학들에게 六藝 특히 書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김종직은 윤호逊이 전주에서 간행한 『효경간오』가 내용적 측면에서 성리학의 근간인 부모에 대한 효도한다는 점, 형식적 측면에서 조맹부체

43) 김종직, 「跋」, “右孝經刊誤，乃子朱子(依?판독난)大學經傳，而爲之分章者。惜乎，世之人，概諸蒙幼之學，謾不致意也。吾方伯帶方尹相公，嘗尹完山，簿書之際，手摹趙松雪證道詞字，以鋟其書。成化丁酉春，建節于茲道，命弊府，用完山本，付板以刊之。由是，湖嶺之南，家家有是書，不數年，殆將徧于海東，□(讚?)之者，非但曉其義，而兼習其字。吁！其利不亦博哉？且松雪筆，流傳于世者，率皆佛書及屏簇耳，今乃托於聖經賢傳，以垂耀無窮焉，抑豈非子昂之一華耶？是歲中秋善山都護府使金宗直謹跋。”(팔호안: 보존상태로 인한 판독난). 원문은 옥영정, 『『효경간오』, 『효경대의』, 『효경언해』의 간행본과 그 계통 연구』, 『정신문화연구』 35-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67에 의거하였다.

44) 김종직, 「先公事業」, 『이준록』下(『점필재집』 부록), “敎余輩爲學不可躐等，初授童蒙須知，幼學字說，正俗篇，皆背誦然後令入小學，次孝經，次大學，次語孟，次中庸，次詩，次書，次春秋，次易，次禮記，然後令讀通鑑及諸史百家。”

45) 고려시대에 『효경』은 국학 교육 및 관료 선발의 필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조선전기에는 이제 막 글을 익히기 시작한 아동이나 초학자들의 교재로 활용되는 등 그 위상이 다소 경감되었다. 강문식, 앞의 논문, 2012, p.13.

를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재이며, 그것을 경상도에도 조속히 간행·보급해야겠다고 여긴 것으로 추측된다.

1478년(성화14, 성종9) 여름, 밀산 朴榿<sup>46)</sup> 상공께서 영남의 안찰사로 오심에 가장 먼저 학문을 진흥시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그리하여 널리 州郡을 순시하며 탐문하다가 서적들이 산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침내 세조조에 印刊한 구결본 『시』, 『서』 각 한부로서 인근의 큰 읍에서 나누어 판각하게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업이 완성되었다. 나는 삼가 탄식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의 문물제도[文獻]는 평소에 中華의 제도에 짝할만하다고 칭해져 왔으니, 그 중에서도 경상일도는 실로 동방의 鄒魯之鄉이다. 국초부터 경서의 板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파손되고 거의 다 없어졌다. 그 사이 왕왕 간행된 서적이라고는 諸子書나 異書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로 인해 학자들이 대부분 詞章의 氣習만을 추구하고 性理의 학문에 대해서는 점차 들리는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야! 애석하도대! 이번 공께서 부임하심에 이러한 일을 급선무로 하시니 그 분은 참으로 근본을 아는 분이라고 하겠다! 하물며 육경이란 모두 載道의 도구이다. 그 중 『시』는 風教(혹은 禮教)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간행한 책은 주희의 集傳과 구결이 있어, 초학자들이 일단 읽어보기만 하면 모두 그 요점을 터득할 것이니 비록 제가들의 纂釋이 달려있다 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공의 뒤를 이어 관찰사로 올 분들이 만일 공의 마음과 꼭 같다면, 경서 가운데 미비된 것들이 모두 크게 갖추어질 것이다. 또한 위로 성명의 우문의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어찌 다 한량할 수 있겠는가! 이해 무술년(1478년) 10월일 선산도호부사 김종직은 삼가 발문을 짓는다.<sup>47)</sup>

46) 김종직과 친분이 있으며, 「密陽鄉社義財記」(『점필재집』문집 권2)에도 박건이 봉록을 회사하여 향사의 의제로 삼았다는 김종직의 기록이 실려 있다.

47) 김종직, 「跋」, 『詩集傳』(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成化十四年夏密山朴相公榿出按嶺表, 首以興學育才爲念. 乃博訪州郡, 知書籍散逸, 遂以世祖朝所印口訣詩書各一部, 分刊于鉅邑, 未幾, 工訖. 宗直竊嘆曰: 我國家文獻, 素稱侔擬中夏, 而慶尙一道 實東方魯鄒也. 自國初, 經書之板, 莫不有之, 而歲久殘缺, 失亡殆盡, 往往刊書者, 亦不過諸子異書??(爾, 因(추정)). 是學者, 率驚於詞章之習, 而性理之學, 浸以無聞, 吁! 可惜也. 今公之來也, 先及乎此, 其知本哉! 況六經, 皆載道之器, 而

인용한 글은 『詩集傳』 발문의 전문이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 이 책은 주희의 집전을 중심으로 하되 장구의 말미에 ‘音釋’이라는 관기를 달고 反切音의 방식으로 독음을 제시하는 음석본이다.<sup>48)</sup>

1419년에 명나라로부터 『四書五經大全』을 들여온 세종이 1427년(세종9년), 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에 각각 판각을 분담시키고, 1435년에는 大全本 印出請願者의 冊紙를 수시로 納送하라고 각도 감사에게 명한 바 있다.<sup>49)</sup> 하지만 불과 40년 사이, 경상도 지역에서 이미 대전본 『시경』을 구득해 볼 수 없었던 정황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세조가 신료들에게 명하여 구결을 달게 한 『시』를 저본으로 번각하였다는 것이다. 대전본 『시경』에는 ‘安成劉氏(劉瑾)’, ‘許謙’ 등 원대의 音釋家들의 주석이 전제되다시피 수록되어 있지만,<sup>50)</sup> 주석의 내용이 지나치게 번다하며 책권수 또한 20卷10冊으로 상당하다.

반면 김종직이 간행한 『시집전』은 주희의 『시집전』을 중심으로 어려운 어휘의 음석이 간결하게 附記됨으로써 방대한 주석을 학습해야 하는 생도들의 부담감을 경감시켜줄 수 있었던 교재가 아닌가 한다. 특히 세조가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에게 경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구결을 달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에서<sup>51)</sup> 경상도 지역에 간행 보급된 『시집전』은 조선 전기의 학자들이 경전의 음과 훈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노

---

詩??教入人尤易, 今是本也, 有集傳, 有口?, ?初學之士, 一寓目之餘, 皆得其旨要, 雖?諸家纂釋, 庸何傷焉? 繼公而至者, 苟以公之心爲心, 則凡經書所未備者, 益以大?, 其上裨聖明右文之治, 烏可量已! 是歲戊戌(1478)十月日善山都護府使金宗直謹跋.”(물음표: 파손 등으로 인한 판독난)

- 48) 예컨대 「淸廟一章八句」의 제목 말미에 ‘楸, 七小反, 復, 扶又反, 乾音干, 豆上之上, 時掌反, 筥, 管同.’과 같이 음석이 달려있다.
- 49) 심경호, 「1.조선시대 한문학의 위상과 중국문학의 비판적 수용」,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pp.44-45.
- 50) 趙險峰, 崔志博, 「元代《詩經》學的特征及歷史地位」, 『河北學刊』 28卷2期, 河北大學, 2008, p.124.
- 51) 강문식,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그 성격」, 『역사비평』 122, 역사비평사, 2018, pp.185-186.

력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종직이 이 책에 원대 학자의 纂釋이 달려있는 점, 구체적으로 그것이 반절음을 활용한 음석이라는 점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시』의 문장은 성리학적 도를 표현하고 있는 재도지기로서, 이것을 정확하게 학습해야 風教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주희의 집전을 중심으로 그 요점의 선명한 이해를 돕는 音釋과 口訣이 달려있어 ‘초학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음석의 주요 출처인 許謙의 『시집전명물초』는 주희의 『시집전』 내용 가운데 의혹이 있는 부분이 주석에 미진한 부분을 확충한 서적이다. 名物, 音訓 등에 있어 육덕명의 『경전석문』, 공영달의 『모시정의』를 비롯한 여러 서적을 두루 고증하여 『시집전』에 빠진 내용이나 의심스러운 부분을 조사·인용하였다.<sup>52)</sup> 『시집전명물초』는 그러한 점에서 訓詁에 강점이 있는 서적으로 알려져 있다. 원대의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는 구두와 음훈에 정통해야 했다. 그래서 『시집전명물초』와 같은 음훈 중심의 주해서들이 원대에 대거 출간되었던 것이다.<sup>53)</sup>

이러한 면모를 고려할 때, 김종직이 간행한 『시집전』 역시 일정부분 과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서 기능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세종대 집현전 학사들은 講經의 목적이 ‘경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게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경서의 공부 방식 역시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훈고와 구두 중심의 학습에만 침잠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경서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함을 피력하였다.<sup>54)</sup>

성종대에 이르러서도 試取 중 강경을 할 때 구두와 음석에 정해 놓은 규칙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한 자들이 구두와 문장에 달통할 수 있었다는 점<sup>55)</sup>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음석본, 주해본의 필요성과 보급 가능

52) 『四庫全書總目提要』

53) 崔志博, 「元代《诗经》学研究」, 河北大学 碩士, 2011, pp.4-5; 曹继华, 「元代《诗经》学述论」, 『汉语言文学研究』 3卷1期, 北京师范大学文学院, 2012, p.60.

54) 金남이, 『집현전 학사의 삶과 문학 세계』, 태학사, 2004, pp.122-126.

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김종직 자신도 독서할 때 文句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朱熹式 독서법을 교육받았다.<sup>56)</sup> 이는 주해본이 단순히 과거수험서로 활용되었다고 한정하기 보다는, 경전의 음훈을 적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교육적 방편이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인용한 발문과 거의 같은 논조를 담고 있는 글로 1476년 김종직이 선산 부사를 역임하고 있던 당시 부친 김숙자의 스승이자 成均司藝 등을 역임 하였던 성리학자 尹祥의 시집에 붙인 서문인 「尹先生祥詩集序」를 들 수 있다. 이 글은 道文一致의 문학관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일찍이 주목을 받아 왔다.

經學을 위주로 하는 선비는 문장 짓는 일에는 약하고, 문장을 하는 선비는 經術 분야에 어둡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보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문장이란 경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경술은 곧 문장의 뿌리인 것이다. 이를 식물에 비유하자면, 어찌 뿌리가 없으면서 가지가 죽죽 뻗고 잎이 무성하며 꽃과 열매가 아름답고 탐스럽게 열리는 경우가 있겠는가? 『詩經』, 『書經』 등의 六經은 모두 경술을 말한 책이요, 육경의 문장은 바로 경술은 담은 문장인 것이다. 그래서 만일 그 문장에 의거하여 육경의 이치를 탐구하며, 정밀하게 관찰하고, 여유 있게 그것을 반복하여 읽어보면, 이치가 문장과 함께 나의 가슴 속에 융화될 것이니, 그것을 발산하

55) 『중종실록』 권57, 1526년(중종 21) 5월 12일, “許磁曰: “成廟朝李克增爲成均館同知, 雖別試, 必講經, 故多有通經之士。今則雖句讀之學, 亦絕, 深可慮也。” 權鈞曰: “成廟朝, 臣以生員居館。其時李克增爲同知; 潘佑亨、李文亨等爲館官, 各分授訓下, 教誨之方甚爲勤密。國家試取, 必請講經, 句讀、音釋, 皆有定規。館官必爲試官, 而取舍之, 故儒者講習, 必於學宮, 猶恐不及, 臣亦爲別試及第。”; 권80, 1535년(중종 30) 12월 11일, “經傳, 載道之具。只習句讀, 不講文義, 無以通其奧趣, 故古之學者, 於音釋、訓誥, 皆有師授, 且須群居講習, 就師質問, 以同其學, 然後可以中講格, 故樂就館學。”

56) 김종직, 「先公事業」, 『이준록』下(『점필재집』 부록), “嘗訓余輩以讀書之法曰: “讀書, 勿羸心大膽, 容易放過, 須仔細看破, 雖置文句做得不着力處, 要把玩, 莫是有別意存, 無可疑, 然後讀過, 可也。””

여 言語와 詞賦를 짓는 데 있어 스스로 글을 잘 지으려 작심하지 않아도 당연히 저절로 잘될 것이다. 예로부터 문장으로 당세에 명성을 드날리고 후세에까지 작품이 전해진 분들은 모두 다만 이와 같이 했을 뿐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다만,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경술이라는 것이 句讀를 어떻게 떼느냐, 訓誥를 어떻게 다느냐 하는 학습에 불과한 것일 뿐이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문장이라는 것이 글을 화려하게 수식하고 짜임새 있게 장식하는 기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 밖에는 모른다. 하지만 구두나 훈고라는 것을 가지고 어찌 고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왕명을 이름답게 장식하는 글, 경세책을 말하며 천하백성을 다스리는 글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겠으며, 곱게 수식하고 짜임새 있게 쓰는 글만 가지고 어찌 性理道德의 학문에 끼어들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마침내는 경술과 문장을 나누어 서로 다른 길이라고 여기면서 서로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아! 그 견해가 천박하도다!57)

이 글은 당대 일반 유자들의 時文 경향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58) 김종직은 科場의 문풍을 바로잡기 위해 경학과 문학이 서로 다른 길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경술을 문장의 뿌리라고 설명한 것은 조선전기 다른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도학과 문장의 관계를 體用的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자들이 과거시험의 講經의 疑義에 대응하기 위해 ‘구두나 훈고’ 등 경전의 의미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독해하는 방법

57) 김종직, 「尹先生祥詩集序」, 『점필재집』 문집 권2, “經術之士, 劣於文章, 文章之士, 闇於經術, 世之人有是言也, 以余觀之, 不然. 文章者, 出於經術, 經術, 乃文章之根柢也. 譬之草木焉, 安有無根柢, 而柯葉之條鬯, 華實之禮秀者乎? 詩書六藝, 皆經術也. 詩書六藝之文, 卽其文章也. 苟能因其文, 而究其理, 精以察之, 優而游之, 理之與文, 融會於吾之胸中, 則其發而爲言語詞賦, 自不期於工而工矣. 自古以文章鳴於時而傳後者, 如斯而已. 人徒見夫今之所謂經術者, 不過句讀訓誥之習耳, 今之所謂文章者, 不過雕篆組織之巧耳. 句讀訓誥, 奚以議夫黼黻經緯之文? 雕篆組織, 豈能與乎性理道德之學? 於是乎, 遂歧經術文章爲二致, 而疑其不相爲用. 嗚呼! 其見亦淺矣!”

58) 이종묵, 「조선 전기 문예정책과 관각문인의 문학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 4, 한국국학진흥원, 2006, pp.547-572 참고. 이종묵 선생님의 논외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도학과 문학을 체용의 관계로 파악하였으며, 이는 문학 관념의 문제를 넘어서 인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 이를 바탕으로 ‘黼黻經緯’ 즉 왕명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경세에 보탬이 되는 글을 창작하는 경지까지 겸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유자들이 다독과 정밀한 독해를 통해 경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내면에 온축해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김종직의 학습관을 고려할 때, 그가 「시집전발」에서 주해본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해명하였던 것은, 주석이 과거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구두와 훈고’의 자료가 아니라 경전의 분명한 독해의 근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혐의를 피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sup>59)</sup>

그간 15세기는 성리학이 이해되어가는 과도기 혹은 성리학적 이해가 불철저하던 시기로 간주되어 왔다.<sup>60)</sup> 하지만 김종직의 간행 사례를 통해 경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각종 주해서가 보급되고 그것이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되는 등 학자들의 갖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1477년에 김종직이 선산에 부임한 이후 조카 康伯珍과 金綴가 각각 대과와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아울러 金宏弼, 李承彦, 元槩, 李鐵均, 郭承華, 周允昌 등의 제자들이 선산향교에 모여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개월간 수업을 하였으며, 이 해 8월 試取의 소식을 듣고 이들을 전송하였다.<sup>61)</sup> 1477

59) 한편, 조선의 성리학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조선전기의 학술적 경향은 경문에 의존하고 주석을 크게 중시하지 않았다고 보는 연구 경향도 이러한 학술적 정황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강재, 「경학사의 관점에서 본 조선 전기의 『논어』인식」, 『중국문학』 91,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p.8. 서거정의 『동인시화』 제19칙에는 세종이 ‘四書五經音解’를 편찬하였다는 점이 드러나 있고, 조선전기의 지식인들이 고급의 언어적 차이와 문물제도, 인명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고 경전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해본을 수용하였다는 점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호훈, 「조선전기 『小學』 이해와 그 학습서」, 『한국계보연구』 6, 한국계보연구회, 2016, pp.73-74.

60) 정재훈, 「16세기 전반 새로운 성리학의 모색과 心學化」, 『한국사상사학』 18, 한국사상사학회, 2002, pp.335-338. 이 논문에서 정재훈은 그간 16세기 사림 단계에 들어서 성리학이 제대로 이해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경향에 대해, 조선개국 이후 2세기간 성리학의 이해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시기상 지나치게 길며 조선전기 사상의 역사적 특성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전기의 성리학은 주자성리학을 체제교학화하여 운용하였던 원대 성리학을 들여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61) 김종직, 「李生員承彦、元參奉概、李生員鐵均、郭進士承華、周秀才允昌、金秀

년 봄부터 나라에 가뭄이 들어 성종이 근심할 정도였으나,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되자 김종직은 교재 간행에 박차를 가하여 지방 인재의 중앙조정 진출을 적극 도왔다. 김종직은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방 훈도와 제자들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통탄하며,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학문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김종직이 자신이 간행한 서적을 교과서로 활용하여 강학을 진행하였을 개연성 또한 상당히 짙다 하겠다.

## 2. 문화 축적을 통한 유가 문명 확산: 문장학습서와 禮書의 보급

김종직이 지방에 부족한 학술자료를 간행하여 지방 사대부나 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인재 양성과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나아가 조선을 성리학적 문명의 반석 위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밑거름으로도 작용하였다.

김종직은 훈고나 사장에 매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던 시대적 분위기에 찬성하였지만, 그럼에도 벼슬길에 나아가 문장화국의 바탕을 축적하기 위해 좋은 문장을 학습하고 수련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경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주해서를 간행하는 데 관여하는 한편, 당송고문을 중심으로 한 『상설고문진보대전』을 간행하여 제자들에게 좋은 글쓰기의 표본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지방관 재임기에 가장 먼저 간행하였던 『상설고문진보대전』에 붙인 발문에서 김종직은 『고문진보』가 문장을 배우는 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

才宏弼, 會府之鄉校, 討論墳典, 就門下, 與病夫問辨數月矣. 聞八月中, 主上將視學取士, 治任告辭, 送之以詩.(『점필재집』 시집 권13). 그밖에 洪裕孫, 楊浚, 楊漑 형제도 서울에서 내려와 김종직에게 受學하였다. 「贈楊秀才浚、洪貢生裕孫」(위의 책, 권15)

한나라, 진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기이하고 우아하며 빼어난 작품들이 이 책에 모두 모였다. 반면 사륙번려체, 배비나 성률에 얽매인 작품들은 비록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수식이 아름답고 악곡을 연주하듯 호방하더라도 역시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주돈이, 장재, 정이의 성리설을 선발하여 후대에 문장을 짓는 방법을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였으니, 아아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진보(참된 보배)』가 된 까닭이로다! 그러나 이 책은 세상에 널리 성행하지 못하였으니, 금속활자로 인쇄하는 대로 곧바로 판을 해체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목판본처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후에 언제든지 인쇄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다. (중략) 앞으로 이 서적이 삼한에 널리 유포되어 마치 쌀이나 의복처럼 집안마다 보관하고 사람마다 암송하며 다투어 문장의 법칙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로다. 그리된다면 우리 조정의 문장법도가 진나라와 당나라, 송나라를 뛰어넘을 것이요, 나아가 주나라와 한나라의 문장과 그 훌륭한함을 견줄 수 있을 것이로다.<sup>62)</sup>

김종직은 『고문진보대전』에 수록된 작품들이 모두 수식을 자제하고 성리학에 근간을 둔 후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문이므로, 문장을 학습하는 자들이 근본으로 여겨야 할 중요한 책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어서 重刊한 지 20년 밖에 지나지 않은 『고문진보대전』을 이미 지방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정황을 서술하고 있다. 국가에서 금속활자로 책을 찍어 배포하였는데, 워낙 적은 部數였던 데다 전국적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김종직은 지방에서 주요 서적을 목판으로 판각하여 문화를 축적·보급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에서는 사대부들이나 학자들이 국가에서 간행하여 배포하는 금속활자본을 구득하기 어려우므로, 목판을 통해 지방에 문화적 지식을

62) 김종직, 「詳說古文眞寶大全跋」, 앞의 책, “漢晉唐宋奇閑僞越之作, 會粹于是. 而駢四儷六, 排比聲律者, 雖雕繪如錦繡, 豪壯如鼓吹, 亦有所不取. 又且參之以濂溪關洛性命之說, 使後之學爲文章者, 知有所根柢焉. 嗚呼! 此其所以爲眞寶也歟! 然而此書不能盛行于世, 蓋鑄字隨印隨壞, 非如板本一完之後, 可恣意以印也. (중략) 將見是書之流布三韓, 如菽粟布帛焉, 家儲而人誦, 競爲之, 則盛朝之文章法度, 可以凌晉唐宋, 而媲美周漢矣.”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고문진보대전』과 같이 중요한 문화적 서적이 경상도에서 간행됨으로써, 영남 지역은 물론 조선 전체에 널리 유포되고 집집마다 소장하게 되어 결국 조선의 문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김중직의 동년인 孫昭가 남긴 「文章軌範跋」<sup>63)</sup>에서 손소 역시 『문장궤범』을 통해 險怪하고 浮華한 문체가 아니라 平正雅麗한 미감의 글쓰기를 배울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sup>64)</sup> 『고문진보』와 『문장궤범』은 모두 초학자들이 훌륭한 고문을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김중직과 손소가 지방 유생들의 문화적 수준 제고를 위해 간행에 힘쓴 것으로 보인다.<sup>65)</sup>

63) 손소의 발문에 따르면, 『문장궤범』은 1475년 경북 榮川에서 朴樞와 金永濡에 의해 간행되었다. 손소는 육경 이후의 문체를 비판하면서 道德之文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손소는 당시 안동도호부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손소의 연보에는 1475년(성종6)의 기록에 “監司金公永濡, 刊文章軌範及古文眞實後集, 請軌範跋於先生, 後集跋於佔畢齋, 兩先生文章之重於當時, 可見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김중직의 발문에는 1472년에 지었다고 시기를 명기하고 있어, 연보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듯 하다. 孫昭, 『襄敏公文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참고.

64) 손소, 「文章軌範跋」, 『襄敏公文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自有此宇宙, 卽有此文章. 然其模範軌轍, 自非深於道者, 鮮有得而知者, 有宋疊山謝先生枋得, 見道明, 識鑑精, 平生無書不讀. 其自爲文, 高邁奇絕, 汪洋演迤, 自成一家. 於是, 採漢武侯以下鉅儒所著, 可爲律格者若干篇彙, 卒成書, 名曰文章軌範, 手自批註, 以詔後之學者, 俾爲文者, 皆知鑄意之有範, 行文之有軌, 非識見之深, 而雄於文者, 詎能有成歟? 然此書, 行於中國者雖廣, 而流於東方者, 蓋寡, 學者罕得而見焉. 錦川君之後朴侯樞, 偶得一秩, 珍藏自私者久矣. 逮倅榮川, 監司金相公永濡, 巡至其邑, 侯以是書進曰: 此吾家私藏而獨善者, 與其私於一家, 孰與衆人共之? 請壽諸梓, 用傳于世.” 相公亦儒林鉅宗也. 披閱久之, 乃曰: “此眞天下奇寶而平昔所未見者也. 惟侯之言, 不亦善乎?” 仍給供費之需, 又命隣邑, 補其不逮, 今已工訖矣. 蓋自六經之後, 文體不古, 流以爲莊老之虛誕, 非虛誕則務爲險怪, 非險怪則務爲浮華之文, 以自誇其以平正雅麗以載道爲事者無幾豈不可歎哉? 此謝先生軌範之所由作而金相公與朴侯所以欲刊之意也. 將見此書之行于世, 家家皆道德之文, 人人盡韓柳之學矣. 其嘉惠後學豈曰少補哉?” 이 글의 존재는 손소규, 「孫昭의 <文章軌範跋>과 古文復古」, 『한국시가연구』 24, 한국시가학회, 2008에 처음 소개되었다.

1474년, 『장자』를 유가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주해한 서적인 『莊子虜齋口義』를 간행하면서 붙인 발문에도 이와 같은 목적을 유추할 수 있다.

『남화경』의 문장은 사람을 고무시키는 것이 신령스러운 듯 하고, 권재 임희일의 주해는 홀로 그 연원에 이르렀다. 대개 천하에 이와 같은 문장이 없어서는 안 되니, 만일 이러한 글이 없어서는 안 된다면 주해 역시 없어서는 안 된다. 과거 세종조에 상국으로 사신을 간 분들이 만일 새로운 주해서를 얻어 가지고 오면 모두 동활자를 이용해 인출하였으니, 이 책이 동방에 행하게 된 것도 역시 이 때부터이다. 그러나 한번 인출한 이후 두 번째 인쇄를 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이니, 학사나 대부들의 집안에도 전해지는 책이 오히려 적은데 하물며 후배들은 어떠하겠는가? (중략) 비록 그러하나 『의례』의 경전도 세상에 융성하게 퍼지지 않았고, 『朱子綱目』도 오히려 판각에서 빠져있거늘, 도리어 부질없이 『남화경』처럼 正道가 아닌 책을 돌아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책을 간행한 일로 김영유 공을 비판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권재 임희일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던가? ‘장자는 반드시 『논어』, 『맹자』, 『중용』, 『대학』에 정통하여 이치를 보는 것이 본래 정해져 있어, 일찍이 방탕하지도 않고 일찍이 농담하지도 않았으니, 『장자』의 대강령과 대종지는 성인과 다르지 않다.’ 권재는 공맹의 무리이니 그가 어찌 우리를 속였겠는가? 지금 김 공께서 이 책의 유포를 급선무로 여기신 것은 바로 권재의 견해와 같은 것이다.”<sup>65)</sup>

65) 선행연구에서 조선시대에 간행된 『문장궤범』의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것으로 강원도 감사 宋麟壽에 의해 1549년(명종4)에 간행된 杆城郡開刊本을 들고 있으나, (심경호, 「고문과 고문론」,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pp.151-152.) 손소의 발문을 통해 1474년에 이미 문장궤범의 목판본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66) 김종직, 「장자권재구의발」, 앞의 책, “南華之文, 鼓舞若神, 虜齋之解, 淵源獨到. 蓋天下不可無此文, 苟不可無此文, 則亦不可無此解也. 昔在世宗朝使于上國者, 苟得箋傳之新奇者以來, 盡用銅字印之, 是書之行于東方, 蓋亦出于斯時也. 然一出之後, 不復再印, 歲月已久, 學士大夫之家, 傳之者尙鮮, 況後輩乎? (中略) 雖然, 儀禮經典, 未盛于世, 朱子綱目, 猶闕於板, 顧規規於南華不經之書, 而世人有以此議公者. 予則曰: “虜齋不云乎? ‘此必精於語孟庸學, 見理素定, 未嘗不跌蕩, 未嘗不戲謔, 而大綱領大宗旨, 未嘗與聖人異也.’ 虜齋孔孟之徒也, 豈誣我哉? 今公之急於是書之行, 亦虜齋之見也.”

김종직은 조선이 문헌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서적의 인쇄와 보급이 활발하지 않아 서적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재차 토로하였다. 1473년에 작성한 「靑丘風雅序」에서도 김종직은 외진 지방에서는 문고가 전하는 것이 드물고 구하기 어려워 살펴볼 자료가 없으며 분실의 우려도 높다고 하였다.<sup>67)</sup> 이어서 이처럼 각종 경서를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주해서를 구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마당에 성리학 서적이 아닌 『장자권재구의』같은 도가의 서적을 간행하는 일이 필요한가에 대해 상세히 해명하고 있다.

먼저 김종직은 『장자권재구의』가 이해하기 힘든 『장자』의 오묘한 문장 이해를 도와 후학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극하다고 설명하였다. ‘天下不可無此文，苟不可無此文’이라는 문장은 임희일의 「莊子口義序」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임희일은 송대의 문인 陳亮이 揚雄의 위인과 문장에 대해 평가하는 글에서 양웅과 같은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쓴 심오한 수준의 서적이 없을 수 없으니, 양웅의 저서 덕분에 성현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한 논리에서 차용하여 『장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68)</sup> 김종직은 임희일의 논지에서 더 나아가, 천하에 장자 같은 기인과 그러한 사람이 쓴 심오한 문장이 없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해설 역시 없을 수 없다고 하여 『장자구의』 간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종직은 세종대에 『장자』의 난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주석서가 인출되었으나, 너무 적게 찍은 데다 한 번 찍은 뒤 활판을 허물어버려 다시 찍지 않았으므로 현재 이 서적이 사대부 가문에서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 개탄하였다. 『상설고문진보대전』과 마찬가지로 사대부들의

67) 김종직, 「靑丘風雅序」, 『靑丘風雅』(영인본, 劉永奉 譯, 以會文化社, 2000), “然文稿之傳世者少, 雖有之, 身縻偏方, 得而觀之爲難. 第恐平日所得者, 亦隨而忘失”

68) 임희일, 『莊子口義』, “陳同甫嘗曰: ‘天下不可以無此人, 亦不可以無此書, 而後足以當君子之論.’若莊子者, 其書雖爲不經, 而爲百家之冠, 此語甚公. 然此書不可不讀亦最難讀.”; 陳亮, 「揚雄度越諸子」, 『龍川集』 권9, “天下不知其幾人也, 古今不知其幾書也. 人物有細大高下, 書有淺深醇疵, 所未暇論也. 要之, 天下不可以無此人, 亦不可以無此書, 而後足以當君子之論.”

교양 함양과 문장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이 너무 적게 인쇄되어 미처 반포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김종직은 문장 학습을 위해 『장자』와 같은 서적도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언급하였다. 『의례』나 『통감강목』 등의 서적 역시 반드시 간행과 보급이 필요하지만, 『장자권재구의』와 같이 심화된 문장 학습과 경서의 정확한 이해에 필요한 서적의 보급 역시 그것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종직은 다시 임희일의 서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대강령과 대종지는 일찍이 성인과 다른 적이 없었다.”고 함으로써 『장자』를 지방에서 간행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임희일은 『장자권재구의』에서 『장자』의 문장기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가 경전의 내용이나 개념과 비교하는 등 구체적으로 노장과 유가의 유사성을 입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sup>69)</sup> 김종직은 『장자권재구의』의 주석적 특징과 문장의 핵심을 분명히 간파하고 있었기에, 이처럼 김영유의 요청에 발맞춰 간행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477년 선산부사를 역임할 당시 간행한 『찬도호주주례』의 발문에서는 이 책이 世教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서적이라는 점과 이처럼 중요한 서적이 지방에서도 발간되는 기쁨을 서술하였다.

영명하신 군주의 태평성세를 만나 문치교화의 덕이 크게 형통해지게 되어, 이 책이 일찍이 간행·반포되었으나, 사방으로 널리 유포되지는 못하였다. (중략) 아아!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을 해내는 데 공의 과감한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어찌 백왕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던 예전이 하루아침에 머나먼 시골구석 후진들의 눈에까지 두루 미칠 수 있었겠는가? 하물며 지금 성상께서 바야흐로 지지를 융성하게 이룩하시며 한 정교, 한 제작조차 모두 『시경』의 「관저」, 「인지」의 아름다운 뜻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주례』 한 부를 차츰 차례로 거행해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천년 뒤에도 삼대의 융성한 문물을 볼 수

69) 임희일은 유가 경전과 노장서의 전체적 체계나 구성을 비교하여 일치한다고 보는 경우와, 노장서의 해석에 있어 유가 경전과 유사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거나 비교하는 방식으로 『장자』를 해석하였다. 김형석, 앞의 논문, 2005, pp.94-95.

있도록 하는 것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겠는가?<sup>70)</sup>

이 역시 앞서 살펴본 두 발문과 강조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먼저 『주례』의 특징과 중요성을 서술한 뒤, 그것이 未備되어 있는 실정에 대해 개탄하였다.<sup>71)</sup> 김종직은 『周禮』를 『周官』과 표리를 이루는 관계라고 파악하였다. 『주관』은 大體를, 『주례』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주례』를 바탕으로 보편적 정치 원리를 수립하고 시행해 나간다면 삼대의 정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주례』가 이처럼 체계적이며 지방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三代의 융성한 정치적 유산이 『주례』를 통해 지방에 보급·축적되고, 이것이 점차 확산되어 나간다면 조선에 융성한 유교 문명이 곧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세 발문은 모두 서적의 출판이 조선의 文治를 앞당기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앙조정의 공식적 서적 간행과 반포가 지방 곳곳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대부 가문에서도 서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으므로, 지방 사대부나 초학들이 독서를 통해 교양을 함양하고 지방관들이 통치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더라도 상고할 만한 서적이 드물었다.

김종직이 지방에서 이처럼 활발하게 간행활동을 펼친 것은 결국 오래도록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지방 사대부나 학자들에게 지식을 보급함으

70) 김종직, 「新刊周禮跋」, 『점필재집』 문집 권2, “運值休明, 文德大亨, 是書嘗徑印布, 而猶不博于四方. (中略) 噫! 非公之決於有爲, 安得百王經世之典, 一朝而徧於遐荒晚輩之目邪? 況今聖上, 方隆至治, 一政教一制作, 皆本於關雎麟趾之美意. 一部周禮, 殆將次第舉行, 俾東人得見三代之盛於千載之下, 未必不由今日始也.”

71) 김종직, 위의 글, “周禮, 周公之作也. 與周官一篇, 相爲表裏, 周官載其槩, 周禮錄其詳. 第恨冬官未及成而公亡, 考工記之補, 蓋漢儒之陋耳. 後世, 遂以此疑非周公之書, 殊不知非聖人無以作也. 中原文獻, 知尊是書者無幾, 況海外乎? 毋恠夫吾東方講貫者之絕無而僅有也.”

로써 지방의 문화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특히 성종대는 문화적 난숙기였다. 김종직은 중앙의 문화적 동향을 의식하면서 지방에서도 그에 발맞추어 유가적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각종 서적 간행에 힘쓰으로써 지방에 성리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확산시키려 하였다. 결국 그것이 확대 발전되어야 조선의 성리학적 문명화가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IV. 교육자 김종직의 재발견

지방관으로서 김종직이 간행한 서적들은 향촌의 사대부와 학자들을 세롭게 각성시켜 소수의 능력이 있는 인재들만이 아닌, 지방의 문화적 수준 전반을 대폭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이 중앙 조정에 진출하여 조선을 성리학적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한 구체적 고민의 결과였다. 이처럼 지방에서 서적을 편찬하여 지식을 보급하려는 김종직의 의지는 실제로 빛을 발하였다. 일례로 강희맹은 1444년(세종26) 함양의 별장에 임시로 기거하고 있었는데, 당시 향학이 쇠퇴하여 籍을 둔 사람이 수십 명에 불과하고, 그 사람됨이 대부분 어리석고 고루한 무리들이었다고 술회하였다. 그런 함양 지역의 문화를 김종직이 일신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김종직에 대한 향리 부모들의 말을 인용하여 “군수가 문학을 숭상하여 문학이 크게 흥기되어 식량을 싸 가지고 와서 취학한 이웃 고을 선비들의 자제가 무려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중 학업이 성취되어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10여 명인데, 사마시에 합격하여 대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적어도 5-6명은 된다.”라고 하며 문화적으로 대단히 황폐했던 함양 지역을 문화적으로 탈바꿈시킨 김종직의 공로에 놀라움을 표하였다.<sup>72)</sup>

72) 강희맹, 「送俞修撰歸養序」, 『사숙재집』 권8, “咸陽爲郡, 介在智異衆山之間, 僻陋最甚. 景醇於甲子冬, 寓於蹄界里莊舍. 余方隸業, 思得一儒士與之講論, 時鄉學廢

김종직은 이처럼 지방관 재임기에 적극적으로 교육자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특히 개인적 인연에서 비롯된 문집 출판 활동을 비롯하여 경서와 문장수련에 필요한 서적 등 각종 성리학 교재를 간행하는 활동에 적극 개입하였던 점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비단 김종직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루어낸 치적이 아니라, 이 시기 경상도 지역의 관찰사나 목민관들이 여러모로 개입하였다는 점, 특히 윤효손이나 박건, 강희맹 등 김종직과 친교가 있던 인사들이 출판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15세기 영남 지방에서 일어난 하나의 집단적 학문 경향 내지 교육적 네트워크의 결과물일 가능성도 농후하다.<sup>73)</sup>

또한 그가 간행한 서적들의 양상을 살펴볼 때, 김종직이 경서의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한 경상도 지역 인재들의 학습과 과거 응시를 독려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경서의 심오한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자구에 대한 구두와 훈고에 집착하는 표면적 학습은 지양해야 하지만, 반드시 주해서를 통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서를 精讀함으로써 양자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전에 근거를 둔 문장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음이 『상설고문진보대전』이나 『장자권재구의』 등의 서적을 통해 드러난다.

요컨대 김종직은 그 일생에 뚜렷한 사상적 저술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강학을 넘어, 다양한 경서와 문장 학습서, 예서 등의 서적 간행에 직접 힘을 기울임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비록 부친 김숙자를 비롯하여 실천을 중시하던 조선전기 여타의 문인들과 다

---

弛, 赴籍者, 不過數十人, 而其爲人, 率皆愚蒙孤陋之徒. 後二十一年甲午夏, 景醇遭養親服, 是年冬, 挈家南歸. 時一善金侯宗直爲郡守, 鄉父老交口稱之曰: '使君尙文教, 文教大興, 傍近諸邑, 衣冠子弟, 贏糧而就學者, 無慮數十人. 而藝成應舉者十餘人, 中司馬試, 待正科者不下五六人. 賓興釋褐者, 若夏山曹公偉太虛氏, 高靈俞公好仁克己氏, 皆使君所陶鑄, 而雄文鉅筆, 馳譽南州者也.' 景醇竊疑之. 茲邑天固荒之矣, 安能破之若此其易耶?"

73) 이에 대한 고찰과 증명은 후고의 과제로 남겨둔다.

른 면모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교재의 간행을 통해 이들과 다른 특별한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지방에서 서적을 편찬하여 지식을 보급하려는 김종직의 의지는 중앙관료로 복귀하여서도 지속된다. 1485년 3월 이조참판을 역임하고 있던 시기에 1484년부터 진행되어 온 甲辰字의 주자 작업이 완료되자 이에 대해 지은 「新鑄字跋」을 참고할 만하다. 이 글의 대부분은 조선의 활자 주조의 내력과 만들어진 주자의 정밀함과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신은 생각하건대 우리 동방은 기자가 봉해진 대대로 문헌의 국가였지만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적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왕조 열성들께서 鑄字를 창조하신 지혜에 힘입어 주자를 이용해 서적을 인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경사자집의 서적이 집집마다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중략) 아아! 우리 성상께서 문화를 우대하고 교화를 흥기시켜 후손들에게 끼쳐줄 좋은 모범을 남기심이 참으로 지극하도대!74)

김종직은 조선이 지식의 유통과 전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명국가임을 강조하며, 중국으로부터 서적을 수입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서적을 간행할 수 있는 조선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75) 김종직은 이처럼 평생에 걸쳐 교육자이자 문명 교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지방관 재임기에 그가 간행한 8종의 서적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김종직의 면모를 재발견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이를 증명하는 데 일조하였기를 기대한다.

74) 김종직, 「新鑄字跋」, 『纂註分類杜詩』(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산貴3717-59), “臣竊惟吾東方自箕子以來, 世爲文獻之邦. 而與中國隔遠, 典籍鮮少, 幸賴我朝之列聖創物之智, 用鑄字印書, 凡經史子集無家不有. (中略) 嗚呼! 我聖上右文興化, 繼述燕翼之規模, 其至矣哉.”

75) 이러한 의식은 「輿地勝覽跋」(『점필재집』 문집 권2)에서도 드러난다.

### 〈參考 文獻〉

- 姜希孟, 『私淑齋集』, 한국문집총간 12.
- 姜希孟, 『晉山世藁』, 晉山世稿重刊委員會 編, 景仁文化社, 1976.
- 金宗直, 『佔畢齋集』, 한국문집총간 12.
- 金宗直, 『靑丘風雅』, 劉永奉 譯, 以會文化社, 2000.
- 孫昭, 『襄敏公文集』(국립중앙도서관 DB)
- 이인영, 『칭분실서목』 권3, 『鶴山李仁榮全集』, 국학자료원, 1998.
- 李獻慶, 『艮翁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34.
- 전녹생, 『壑隱先生逸稿』, 한국문집총간 3.
- 『詳說古文眞寶大全』, 국립중앙도서관 DB.
- 『詩集傳』, 규장각한국학연구원 DB.
- 『莊子蘧齋口義』, 국립중앙도서관 DB.
- 『纂註分類杜詩』, 국립중앙도서관 DB.
- 강문식, 「조선전기의 『효경』 이해」, 『정신문화연구』 35-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p.7-34.
- 강문식,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그 성격」, 『역사비평』 122, 역사비평사, 2018, pp.168-194.
- 강찬수, 「中國刻本 〈古文眞寶〉에 대한 연구」, 『중국문학연구』 32, 한국중문학회, 2006, pp.73-93.
- 구슬아, 「金宗直 산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1-387.
-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삶과 문학 세계』, 태학사, 2004, pp.1-363.
- 김수경, 「正祖朝 왕실도서관 『詩經』 文獻 目錄 및 텍스트 編輯에 관한 고찰」, 『한국 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pp.37-64.
- 김영봉, 「『청구풍아』 연구」, 『열상고전연구』 11, 열상고전연구회, 1998, pp.215-257.
- 김우정, 「조선 전기 한문산문사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연구』 65, 한국한문학회, 2017, pp.89-121.
- 김치우,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p.1-251.

김형석, 「南宋 林希逸의 新儒學的 老莊解釋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pp.1-238.

박현순, 『『남화경주해산보(南華經註解刪補)』번역 : 〈소요유〉, 〈제물론〉, 〈양생주〉」, 고려대학교 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0, pp.1-181.

손오규, 「孫昭의 〈文章軌範 跋〉과 古文復古」, 『한국사기학회』 24, 한국사기학회, 2008, pp.287-311.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pp.1-668.

심경호, 「조선전기의 註解本 간행과 문헌 가공에 대하여」, 『대동한문학회』 20, 대동한문학회, 2004, pp. 169-248.

심우준, 「『纂圖互註周禮』板本考」, 『인문학연구』 4-5,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7, pp.159-186.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50, 한국서지학회, 2011, pp.433-470.

옥영정, 「국내 현존 宋·元本の 조사와 書誌的 분석」, 『서지학연구』 52, 서지학회, 2012, pp.249-293.

옥영정, 「『효경간오』, 『효경대의』, 『효경언해』의 간행본과 그 계통 연구」, 『정신문화연구』 35-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p.59-85.

윤인숙, 『조선전기의 사립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6, pp.1-340.

이강재, 「경학사의 관점에서 본 조선 전기의 『논어』인식」, 『중국문학』 91,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pp.1-12.

이종묵, 「조선 전기 문예정책과 관각문인의 문학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 4, 한국국학진흥원, 2006, pp.547-572.

임기영, 「청도의 전적 인쇄 문화 연구」, 『서지학연구』 50, 한국서지학회, 2011, pp.113-160.

점필재연구소,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 인문사, 2011, pp.1-537.

정경주, 「점필재 김종직의 政敎와 講學의 서정-함양군수 시기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3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3, pp.175-210.

정재철, 「『詳說古文眞實大全』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pp.24-57.

- 정재훈, 「16세기 전반 새로운 성리학의 모색과 心學化」, 『한국사상사학』 18, 한국사상사학회, 2002, pp.333-368.
- 정호훈, 「朱子 『孝經刊誤』와 그 성격」, 『동방학지』 11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2, pp.71-106.
- 정호훈, 「조선전기 『小學』 이해와 그 학습서」, 『한국계보연구』 6, 한국계보연구회, 2016, pp.67-116.
- 천혜봉, 『일본 봉좌문고 한국전적』, 지식산업사, 2003, pp.1-488.
- 최경훈, 「조선전기 주자 저술의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2, 서지학회, 2009, pp.453-489.
- 홍원식 외, 『낙중학-조선시대 낙동강 중류 지역의 유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pp.1-396.
- 홍원식 외, 『조선전기 도학파의 사상-‘낙중학’의 원류』,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 pp.1-351.
- 顧永新, 「詩集傳音釋本考」, 『詩經研究叢刊』 25, 2013, pp.3-17.
- 曹继华, 「元代《诗经》学述论」, 『汉语言文学研究』 3卷1期, 北京师范大学文学院, 2012, pp.58-62.
- 赵险峰, 崔志博, 「元代《诗经》学的特征及历史地位」, 『河北学刊』 28卷2期, 河北大学, 2008, pp.123-127.
- 崔志博, 「元代《诗经》学研究」, 河北大学 碩士, 2011, pp.1-73.

## Abstract

### *A Study on the Activities of Kim Jong-jik in Publishing*

*-Around the Period of the local governor-*

Koo Seul-Ah\*

This article examined the publication patterns of 8 books published by Kim Jong-jik (金宗直) during his reign at the time of provincial office, which is considered to have left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in his political career. First, Kim Jong-jik observed that the books involved in the publication were related to learning sentences and preparing for examinations(科擧) in part, and analyzed them in line with academic and surgical historic trends in the Yeongnam region of Joseon.

Kim Jong-jik wanted to promote local talent and help reform the culture of the hometown, focusing on the subject and academic studies. He asked local talents to move on to central government through examinations to promote the civilization of Joseon. Accordingly, various versions of the book were intended to enable more accurate reading of the Bible. Kim Jong-jik judged that sentences can be refined through accurate reading that can accurate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scriptures. He also hoped that the books he published and distributed would be used as such teaching materials. Beyond encouraging local talents to enter the center, this data can be used to infer the methods of learning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Through this research, I hope that Kim Jong-jik, an educator, can be rediscovered and that the research vacuum in Joseon Dynasty can be filled with a certain amount.

【Key words】 Kim Jong-jik(金宗直), provincial office(地方官), Book publication, Annotated editions(注解書), educator

투고일 : 5월 30일, 심사완료일 : 6월 11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

\* Senior researcher of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trot999@snu.ac.kr